

부정 접두어 ‘無, 不, 未, 非’의 성격과 용법

趙 賢 淑*

1. 緒 論

의미나 기능이 부정을 나타내는 형태소는 否定的 範圍(scope of negation)와 용법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¹⁾

- 1) a. 나는 학교에 안 간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 b. 나는 학교에 못 간다.
나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
- 2) a. 無意識, 無計劃, 無條件, 無制限
- b. 不可能, 不完全, 不健全, 不合理
- c. 非現實的, 非合理的, 非常識的
- d. 未解決, 未完成, 未確認

1)은 그 부정의 범주가 문장에 걸치게 되는 문부정(sentence-negation)이고 ‘아니’와 ‘못’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정소(negatives)가 된다.

2)는 成分 否定(constituent negation)으로 한자어 名詞(語基) 앞에 否定 接頭語 無, 不, 未, 非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朴舜威(1981)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전자는 통사론적 층위의 부정이라고 한다면, 후자

* 국어연구소

1) 박순함(1981) 참조.

는 형태론적(어휘론적) 층위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국어의 否定法에 관한 연구는 變形生成 文法의 理論이 적용되면서 활발해졌으나 그것은 대체로 전자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도 否定法의 두가지 형식 「—지 않는다(지 못한다)」와 「아니(못) 한다」의 同意性和 異意性의 문제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왔던 것이다.

後者에 관해서는 崔鉉培(1955)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대체로 形態素의 目錄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후에 金錫得(1971)에서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이러한 成分 否定의 몇 가지 특징이 단편적으로 그것도 文否定과 비교하는 입장에서 논의되었을 뿐이다.

박순함(1981)에서는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이라는 비교적 분명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성분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국어의 성분 부정법을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새로운 이론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분히 시도적인 업적이었다.

本稿에서는 주로 成分 否定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成分 否定의 2대 요소가 되는 否定 接頭語 無, 不, 非, 未와 결합대상 名詞 語基의 일반적인 성격과 기능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2.1에서는 성분 부정의 일반적 특징, 부정 접두어가 고유어 접두어나 동일 위치의 다른 한자어 접두어와 다른 특징 몇 가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2에서는 결합대상 명사 어기의 성격을 명사의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 of a noun)³⁾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검증틀을 통하여 살펴보고 2.3에서는 부정 접두어와 명사 어기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또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 3 장에서는 부정 접두어 無, 不, 未, 非의 용법 및 기능상의 차이점과 이들 각각과 결합하는 명사 어기의 성격을 밝히는데 천착해서 보다 면밀하게

2) 박순함(1981)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분 부정을 어휘적인 현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첫째, 어휘적으로 부정 접두사의 유무에 따라 긍정 대 부정의 관계를 이루는 한 쌍이 존재한다. 둘째, 부정 접두사의 동반 여부가 문장 전체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다른 용어로는 動作類(aktionsart), 내적 의미(inherent meaning) 등이 있다.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高永根(1983) 元大誠(1985) 참조.

이들을 살펴 본다. 이때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결합 대상 명사의 상적 특성은 각각의 부정 접두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⁴⁾

둘째, 각각의 부정 접두어와 결합함으로써 명사 어기의 내적 의미가 변화를 보이는가, 변화했다면 어떤 양상의 변화를 보이는가.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들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본고의 자료는 「국어 대사전」(이희승 편저, 민중서림, 1982)에서 주로 발췌하였고, 본고의 성격상 주로 3(혹은 그 이상)음절 한자어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3음절어로서 ○+○○의 구조가 아닌 것은 일단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不得已, 未曾有, 不可分, 不世出, 不請客 등은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⁵⁾

2. 성분 부정의 일반적 특징

2.1. 자립적인 용법을 갖지 못하고 항상 어기를 이루는 요소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위 성분 부정의 否定素 無,

4) 相原(1986)에서는 이러한 부정 접두어가 어떠한 것을 부정하는가, 즉 접두어가 결합하기 이전의 어기나 형태소에는 어떠한 특성이나 경향이 보이는가를 다루면서 그 부정의 양상을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개념성의 부정
2. 존재성의 부정
3. 행위성의 부정
4. 사태성의 부정
5. 가치성의 부정

5) 본고에서 부정의 접두어를 포함하고 있는 결합형 가운데 3음절(이상) 한자어를 문제로 삼은 이유는 이들의 대부분이 語基로 2음절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음절 한자어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혹은 어기로서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에서 1음절 한자어보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가 쉬웠다. 또한 현대 국어에서 2음절 한자어의 대부분은 하나의 어기에 상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단위로 분해하고 그들의 기능이나 용법을 파악하는 일은 대부분 3음절 한자어를 분해하는 작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되어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했다.

不, 未, 非는 접두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접두사로 확정하는 데는 다소의 유보를 요한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어에 있어서 접두사의 용법은 대체로 어조를 고른다거나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는 의미를 첨가하는 데에 그치지만 이들 부정 접두어는 형태 통사적 기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⁶⁾

- 3) a. 비바람이 몰아친다.
비바람이 휘몰아친다.
b. 關心(<*關心하다)
無關心(<無關心하다)

3a)와는 달리 '無關心하다'의 경우 '關心' 자체는 서술어화(혹은 형용사화)하지 않지만 이것을 語基로 해서 부정 접두사 無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無關心은 다시 '-하다'와 결합한다. 그리하여 형용사 어근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김규철(1980)에서는 한자어 부정 접두어의 이러한 성격을 지적하고 이들을 準接頭辭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野村(1978)에서는, 일본어의 한자어를 다루면서, 한자어의 이러한 요소들을 앞 부분의 접사성 어기(前部分の接辭性語基)라고 命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과연 어기인가 아니면 접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無, 不, 非, 未를 否定素 혹은 否定接頭語라 하고, 동일 위치의 1음절 漢字語는 (漢字語) 接頭語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자어 부정 접두어가 어기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러한 특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유어 접두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이 밖에도 부정 접두어는 동일 위치의 일반 한자어 접두어와도 약간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다음의 예를 검토해 보자.

- 4) a. 上昇하다—急上昇하다/急上昇을 하다
發見하다—再發見하다/再發見을 하다
訓練하다—猛訓練하다/猛訓練을 하다
b. 演技하다—*名演技하다/名演技를 하다

6) 김규철(1980) 참조.

記錄하다—*好記錄하다/好記錄을 내다⁷⁾

c. 完全하다—不完全하다/*不完全을 하다

意味하다—無意味하다/*無意味를 하다

確認하다—未確認되다⁸⁾/*未確認이 되다

한자어 명사는 보통 파생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성은 완전한 것이 못 되어서 일정한 환경만 되면 語根分離現象⁹⁾이 쉽게 일어난다. 위의 예 4a, b)는 이러한 양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4c)의 예는 4a, b)와는 달리 어근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부정 접두어가 동일 위치의 1 음절 한자어와는 그 성격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분 부정과는 달리 어근 분리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4a, b)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사이에도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4a)는 접두어와 결합해서 동사적 성격을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고 어근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의미의 변화 없이 수의 적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 반면에, 4b)의 경우에는 어근 분리 현상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한자어 접두어가 명사어기의 형태 통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정 접두어와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자어 접두어 간의 기능적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즉 4a)와 4b)의 차이는 한자어 접두어 再, 猛, 急은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반면에 접두어 名이나 好는 이와 달리 동

7) 어근 분리 현상에서 서술어의 경우, ‘하다’ 이외의 동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대하다—기대를 하다/기대를 걸다

명령하다—명령을 하다/명령을 내리다

성공하다—성공을 하다/성공을 거두다

위의 ‘(호기록을) 내다’도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호기록을 하다) 이와 평행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8) 여기에서 ‘미확인하다’는 국어로서 토박이 화자의 직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3.3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9) 이에 관해서는 임흥빈(1979) 참조.

사와 결합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졌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일단 동사로 전성된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접두어 名이나 好가 다시 결합하면 쉽게 어근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위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접두어 名이나 好 자체가 통사적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기보다 그것에 의해 그 용법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옳은 해석이 될 것 같다.

이 경우 再, 猛, 急이 부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名, 好는 관형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정 접두어 無, 不, 非, 未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4c)의 예들에서 어근이 분리되지 않는 점에서 4a)와는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漢語系 접두어의 성격을 몇몇 관점에서 살펴 보았는데 부정 접두어가 고유어 접두어는 물론 일반적인 한자어 접두어와도 다른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¹⁾

2.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 접두어가 어떠한(상적) 특성을 가진 명사와 결합하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¹²⁾ 본절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전초 작업으로 명사의 상적인 특성을 검증하는 몇가지 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0) 森山(1986)는 일본어의 한자어 접사과 구문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전자를 ‘接辭レベルの副詞’라 하고, 후자를 ‘接辭レベルの連體詞’라고 하고 있다.

11) 野村(1973)에서는 한자어 부정 접두어가 가지는 특징을 논하면서 동일한 결합관계를 가지는 1음절 한자어(○+○○)나 다른 한자어 접두어와는 수식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5) a. 무의미, 불완전, 비합리적, 미해결
 ↑ ↑ ↑ ↑
 □ □ □ □
 b. 약조건, 핵심현, 여교사
 ↑ ↑ ↑
 □ □ □
 c. 급상승, 재발견, 맹훈련, 명연기, 호기록
 ↑ ↑ ↑ ↑ ↑
 □ □ □ □ □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중국어의 어순을 말해주는 것일 뿐, 국어 단어로서의 성분 부정의 특징이라고 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 12) 박순함(1981)에서는 명사 어기의 성격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1. 부정 접두어를 수의적으로 택하는 경우
 2. 부정 접두어를 필수적으로 택하는 경우

국어 사전류에서 그 품사가 명사로 처리되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대체로 6)과 같은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 6) a. 명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것
- b. 반드시 다른 형식과 결합해서만 사용되는 것

여기에서 6b)에 속하는 한자어는 한자어 중에서도 소위 어근성 명사에 해당하는 한자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형식이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7) *찬란 *완전 *적합 *격당 *가능

이들은 반드시 ‘하다’와의 결합형으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관형어가 나타날 수 없고 그 뒤에 격조사가 연결될 수 없다는 특성도 함께 가진다.¹³⁾

그러나 어근성 명사의 이러한 특징을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8) a. 그의 신조는 완전이다/완전이 그의 신조다.
- b. 서울의 밤풍경은 한마디로 찬란이다.

이러한 문장들의 可容性(acceptability)을 의심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한자어가 명사로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¹⁴⁾ 물론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조사와 계사와의 통합 관계로써 명사의 성격을 밝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

두 유형의 명사 어기는 반의어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두 부류의 명사 어기가 오히려 음절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명사로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2음절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는 부정 접두어를 수의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반면에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1음절 한자어는 부정 접두어를 필수적으로 택하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음절수가 이들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13) 원대성(1985) 참조.

14) “‘가다’의 어간은 ‘가-’이다”에서 ‘가-’를 명사라고 할 수 없고 인용의 용법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 예문에서의 ‘완전, 찬란’ 등이 인용의 용법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그야말로 소위 명사인지가 여기서 확정할 수 없게 된다.

론적 특징을 보충하여 한자어 명사의 성격을 밝혀 보기로 한다.¹⁵⁾

- 9) a. 모든 격조사와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다.¹⁶⁾
- b.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파생된다.
- c.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파생된다.
- d. “-的”과 결합하여 형용사적 성격의 명사로 파생된다.

9b)에 해당하는 명사는 [+동작성]을 가진 명사로, 9c)에 해당하는 명사는 [+상태성]을 가진 명사로 일단 규정한다. 9d)도 9b)나 9c)와 마찬가지로 서술어화의 한 방식인데 특히 명사 어기에 상태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9b)에 해당하는 한자어와 9c)에 해당하는 명사는 배타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9c)와 9d)와의 관계도 상호 배타적이다.¹⁷⁾

원대성(1985)에서는 명사의 상적 특성을 통사적인 통합 관계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체성, 상태성, 동작성, 과정성, 순간성의 의미자질로써 규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원대성(1985)의 이러한 논의와 위의 검증틀을 근거로 해서 부정 접두어의 결합 대상이 되는 명사 어기의 상적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¹⁸⁾

2.3. 과연 각각의 부정 접두어는 어떠한 성격의 명사 어기와 결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까닭은 하나의 명사는 하나의 부정 접두어만을 취하여 성분 부정어를 형성한다는 분포상의 특징 때문이다. 하나의 어기가 둘 이상의 접두어를 취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15) 이러한 방법론은 野村(1973)과 野村(1974)를 참조하였는데 이 논문들은 일본어 한자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르다.

16)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자어가 있다면 이 한자어는 이미 명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 김창섭(1984) 참조.

18) 박순함(1981)에서는 한자어 어휘들의 특징을 논의하는 가운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한자어는 한자어와단 共起한다고 하면서 부정 접두사와 결합하는 명사 어기에 [+sino]라는 제약울 어휘부에 두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바로 그 ‘약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생각된다.

脫이데올로기, 非이데올로기의, 急템프, 名아나운서, 카리스마的, 冬파, 缸아리, 덕性, 幸여나, 큰兄, 큰兄嫂

10) 어기	無	不	未	非
의식	무의식	*	*	*
의미	무의미	*	*	*
가능	*	불가능	*	*
정확	*	부정확	*	*
해결	*	*	미해결	*
완성	*	*	미완성	*
합법	*	*	*	비합법(적)
우호	*	*	*	비우호(적)

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분 부정의 형성에 있어 하나의 명사는 하나의 부정 접두어만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도 즉 하나의 명사 어기가 둘 이상의 부정 접두어를 취해서 두 가지 성분 부정어를 만드는 경우에도 몇 가지 재미 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 하나는 결코 하나의 명사 어기가 無와 不을 동시에 취해서 각각 성분 부정어로 파생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不과 非는 하나의 명사에 동시에 선택되어 파생된다.

11) a. 합리	불합리(하다)	비합리(적)
도덕	부도덕(하다)	비도덕(적)
자연	부자연(하다, 스럽다)	비자연(적)
b. 상식	물상식(하다) ¹⁹⁾	비상식(적)

이 경우 이 두 부류의 의미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그 까닭은 만약 이들의 의미가 같다면 분포적인 예외로 남겨 두어야 하겠지만 그들 상호간의 의미가 다르다면 그 의미 상의 차이는 당연히 접두어나 결합 대상 명사 어기의 성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창섭(1984)에서는 ‘자연스럽다’와 ‘자연적’이 공존하는 현상을 전자의 자연은 실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자연으로, 후자를 상태성의 의미로서의 자연으로 각각 설명함으로써 여기에 공존의 원인을 두어 분포적인 예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명사가 단어 형성 특히

19) 沒의 사전적인 설명은 “[없음]을 힘있게 나타내는 말”이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부정소 無와 그 행동을 같이 하는 것 같다.

부정어의 형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만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단어와의 공기 제약의 문제일 것이다.

- 12) a. 자연스러운 태도
*자연적인 태도
b. *자연스러운(재난, 법칙)
자연적인(재난, 법칙)

위의 예에서 ‘태도’는 ‘자연스럽다’ 하고만 결합하고 ‘재난’은 ‘자연적’ 하고만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자연적인’의 ‘자연’의 의미는 실제적인 자연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자연적인’을 ‘자연’으로 대체해도 그 의미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자연 재난, 자연 법칙) 그 반의어를 찾아본다면 ‘인위적인’ 정도가 될 것이다.

반면에 ‘자연스러운’의 의미를 다른 말로 풀어 보면 ‘우리가 없는, 억지로 하지 않는’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 對가 되는 말도 ‘무리한, 억지가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자연적인’의 자연과는 대조적으로 상태로서의 ‘자연’에서 파생된 ‘자연스러운’의 ‘자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를 다른 어휘에도 확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 13) a. 평화로운(마을, 세계)
*평화적인(마을, 세계)
b. *평화로운(수단, 방법)
평화적인(수단, 방법)

다 같이 ‘평화’를 어기로 해서 파생된 형용사이지만, 다른 단어, 즉 피수식어가 되는 명사의 선택에 있어서 ‘평화롭다, 평화적’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을 의미적으로 풀어 보더라도 13a)의 ‘평화로운’은 ‘전쟁이 없는 혹은 싸움이 없는’이라 한다면 ‘평화적인’은 ‘온건한’ 정도가 될 것이다.

명사 파생 형용사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적인 특성은 부정 파생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 14) a. 부자연스러운 태도
*비자연적인 태도
b. *부자연스러운 재난
비자연적인 재난
b'. *비평화적인 마을
비평화적인(수단, 방법)

이 때 ‘평화로운’은 한자어 부정 접두어에 의한 파생어가 빈칸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 경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의미 특성이나 공기 관계가 언제나 이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위의 예에서 舍理와 道德을 어기로 하는 형용사 파생어와 그들의 부정 파생어는 다른 어휘와의 공존 관계나 의미 특성이 거의 유사해서 兩者를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나의 어기가 하나의 접사를 취한다는 일반적인 현상의 예외를 보이는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상 예외가 아니라 의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몇몇 예를 제외한다면 명사 어기는 하나의 부정 접두어는 취하고 나머지 부정 접두어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명사 어기와 부정 접두어의 결합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해준다.

우선 어기에 초점을 맞추어 얘기해보자. 하나의 어기가 하나의 부정 접두어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명사의 특성에 의해 각기 다른 부정 접두어가 선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부정 접두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정 접두어의 성격이나 기능의 차이에 의해 일정한 명사하고만 결합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자에 해당한다면 명사 어기의 어떠한 성격에 의해 부정 접두어가 선택되는가, 후자라면 부정 접두어가 어떠한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부정 접두어의 용법

위에서 우리는 부정 접두어가 어떤 명사와 결합할 때 그 결합 대상 명사가 가진 형태 통사적인 성격을 바꿀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정 접두어 모두가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이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양상은 부정 접두어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 같다.

부정 접두어 無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자어 명사 어기와 결합에서 만들어진 성분 부정어가 형용사 어근으로 파생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많이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형용사 파생의 방법이나 서술어화의 방법도 부정 접두어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1. 無

우선 無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파생되는 예를 살펴 보자.

	A	B	C	D
15)	기력	*기력하다	/ 무기력	무기력하다
	질서	*질서하다	/ 무질서	무질서하다
	표정	*표정하다	/ 무표정	무표정하다
	책임	*책임하다	/ 무책임	무책임하다

이때 명사 “기력, 질서, 표정, 책임”은 위의 2.2의 9b, c, d)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정 접두어와는 통합될 수 있다. 즉 이들 자신은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 파생(혹은 서술어화)을 겪지 않으면서, 접두어 無와 결합하면서 형용사 어근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고유어 접두사와는 다른 한자어 부정 접두어의 독특한 용법으로 몇몇 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무기력하다’의 의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상태성] [-동작성]²⁰⁾의 의미 자질을 가진 명사 氣力에, 부정 접두어 無는 상태성을 부여해서 형용사의 어근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접미

20) 명사의 이러한 상적 특징은 相原(1986)의 ‘存在性’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 ‘-하다’는 서술어화에 관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명사 어기에 “하다”가 결합하여 서술어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용사화가 아니라 동사로 파생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그 양상은 약간 다르지만 접두어가 결합하여 통사적 성격을 변화시킨 또 하나의 경우가 될 것이다. 즉 [+동작성]의 자질을 가진 명사가 성분 부정을 이루게 되면 그 통합형은 어기가 가지고 있던 자질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A	B	C	D
16)	의식	의식하다 /	무의식	*무의식하다
	계획	계획하다 /	무계획	?무계획하다
	제한	제한하다 /	무제한	*무제한하다
	비판	비판하다 /	무비판	*무비판하다
	저항	저항하다 /	무저항	*무저항하다

위의 A의 예들은 모두 [-상태성], [+동작성]을 가진 명사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파생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명사가 부정 접두어와 결합하면 부정 접두어 無는 어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기능과 성격을 명사 어기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작성]을 가지고 있던, 즉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파생하던 명사에 부정 접두어 無가 결합되면서 그 [+동작성]의 자질을 잃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형용사 어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상태성] [-동작성]의 의미 자질을 가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C계열의 명사 어기가 ‘-하다’와 결합하여 상태 동사나 동작 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것은 이들 한자어가 [-상태성] [-동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부정 접두어 無는 부정의 의미만을 첨가해줄 뿐,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어기에 더해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어휘가 즉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어휘에 다시 접미사 ‘-的’이 결합되어야만 한다. 이 ‘-的’이라는 형태소는 선행 어기가 [+상태성]의 자질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²¹⁾

21) 접미사 的의 성격에 관해서는 김창섭(1984) 참조.

- 17) *무의식하다—무의식적(이다)
 ?무계획하다—무계획적(이다)
 *무제한하다—무제한적(이다)
 *무비판하다—무비판적(이다)
 *무저항하다—무저항적(이다)

無가 명사 어기에 결합하여 파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하다’ 파생이나 ‘-的’ 파생을 겪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無免許, 無伴奏, 無投票, 無失點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이들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한자어 어휘가 후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위의 단어들은 후속하는 한자어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 접두어와 결합하여 후속하는 명사를 한정하는 기능은 다른 부정 접두어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부정 접두어 無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태성] [-동작성] 어기에 그의 본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의상의 의미를 첨가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더해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동작성의 자질을 가진 명사와 결합하여 그 동작성을 잃어 버리게 한다는 것이다.

4.2. 不

위의 예들과는 달리 결합 대상이 되는 명사 어근 그 자신이 본래 형용사 어근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말하자면 명사 어기가 [+상태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접두어와 결합하더라도 형용사 어근으로서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다시 말해 [+상태성] 명사는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파생된다. 또한 부정 접두어와 결합한 이후에도 [+상태성]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 18) | 완전 | 완전하다 | / | 불완전 | 불완전하다 |
| | 친절 | 친절하다 | / | 불친절 | 불친절하다 |
| | 성실 | 성실하다 | / | 불성실 | 불성실하다 |
| | 가능 | 가능하다 | / | 불가능 | 불가능하다 |
| | 건전 | 건전하다 | / | 불건전 | 불건전하다 |
| | 공평 | 공평하다 | / | 불공평 | 불공평하다 |

충분	충분하다 / 불충분	불충분하다
정확	정확하다 / 부정확	부정확하다
적합	적합하다 / 부적합	부적합하다
적당	적당하다 / 부적당	부적당하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종류의 명사, 즉 형용사 어근이 될 수 있는 명사가 부정 접두어가 명사와 결합해서 성분 부정어를 만들 때, 이때 취하는 부정 접두어는 반드시 **不**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부정 접두어를 취해서 성분 부정을 형성하는 경우를 필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때의 **不**은 부정의 의미만을 더해 줄 뿐 어기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不**의 경우에도 어근의 의미적 성격을 바꾸는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들 때문이다.

19) 합리	*합리하다 / 불합리	불합리하다
도덕	*도덕하다 / 부도덕	부도덕하다

위의 19)와 같이 [-상태성] [-동작성]의 명사 합리, 도덕에 부정 접두어 **不**이 결합함으로써 상태성을 획득하게 됨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하여 ‘-하다’가 결합해서 상태동사가 된 것이다.

이때의 **不**은 어기에 부정의 의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첨가해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不은 크게 두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첫째는 어기가 [+상태성]인 명사에는 부정의 의미만을 더해준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의 의미 뿐만 아니라 상태성의 의미 자질도 더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극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 접두어 **不**과 명사 어기가 결합하는 경우는 모두 상태성을 가지게 되므로 여기에 따로 상태성을 부가해 주는 접미사 ‘-的’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不定期的과 같은 예가 드물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파생 순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3.4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4.3. 未

野村(1973)은 일본어의 부정 접두어 未를 논하면서 이와 결합하는 대상 명사는 동작성을 가지고 있고 ‘-하다’ 파생 동사는 순간 동사가 많으며 또한 未와의 결합형은 어느 시점까지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어의 경우 우선 부정 접두어 未와 결합하는 명사 어기를 살펴 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0) 해결	해결하다
확인	확인하다
완성	완성하다
합의	합의하다
발표	발표하다

이들은 ‘-하다’와 결합하여 동작 동사로 파생된다. 동작 동사 중에서도 [+순간성]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들 한자어 명사 어기는 [-동작성]²²⁾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부정 접두어 未가, 위에서 다른 부정 접두어 無나 不과 다른 점은 명사 어기의 특성 뿐만이 아니고 결합 이후의 성격이다.

즉 未와 명사 어기의 결합형은 ‘-하다’에 의한 파생이 불가능한 것 같다.

21) 미해결	*미해결하다
미확인	*미확인하다
미완성	*미확인하다
미합의	*미합의하다
미발표	*미발표하다

앞서 3.1에서 이와 평행되는 예로 동작성을 가진 명사가 부정 접두어 無와 결합할 경우 그 자체로서는 형용사 어근이 될 수 없고, 다시 접미사 ‘-的’과 결합함으로써 형용사적 성격을 가진 명사로 파생할 수 있음

22) 相原(1986)에서 보면 부정소 未는 주로 ‘행위성의 부정’과 관련되는데 국어에서 未와 관련된 명사 어기가 주로 동작 동사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未의 경우는 이와는 그 양상이 약간 다르다.

22) *미해결적 *미확인적 *미합의적 *미발표적 *미완성적

결국 未와 명사 어기의 결합형은 ‘-하다’ 접미사에 의한 동작 동사나 상태동사로의 파생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되다’에 의한 파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매우 특이하다.

23) A	B
미해결	미해결되다
미확인	미확인되다
미완성	미완성되다
미합의	미합의되다
미발표	미발표되다

未와 결합하는 명사 어기의 성격이 이미 無, 不과는 달리 상당히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결합 이후의 성격도 상당히 독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 이들이 無나 不의 결합형과는 달리 ‘-하다’ 접미사와는 결합하지 않고 왜 ‘-되다’와의 결합은 가능한가?

우리는 여기서 명사의 내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에서 우리는 명사를 상태성, 동작성, 순간성 등의 자질로 규정해 왔다.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 자질만으로 과연 모든 명사의 의미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한자어 명사에 의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24) 피격	피격(*하다, 되다, 당하다)
피살	피살(*하다, 되다, 당하다)
피습	피습(*하다, ?되다, 당하다)

이들 명사는 ‘-하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대신 ‘-당하다, -되다’와 같은 접미어와의 결합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해결’류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겠지만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명사 자체의 상적 특성 때문에 ‘-하다’와는 결합하지 못하고 ‘-되다, 당하다’와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2.2에서 언급한 상적 특성외에 態(voice)의 자질이 명사의 상적 특성을 밝히는 의미 자질로 추가되어야함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천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부정 접두어 未는 명사 어기의 상적 특성을 바꾸기는 하되 앞에서 살펴본 無, 不과는 그 양상이 약간 달라서 [+동작성]의 자질을 가진 명사가 부정 접두어 未와 결합함으로써 [+피동성]의 자질을 더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4. 非

부정 접두어 非가 다른 접두어와 달리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은 바로 결합 대상 명사 어기가 2차적 결합 이상인 단어가 많다는 점이다. 그 결합의 유형을 살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갈래로 나누어진다.

25) a. 非+어기+어기

b. 非+어기-접사적 성격을 가진 형태소

우선 25b) 유형의 단어부터 살펴보자.

접미사적 성격을 가진 형태소로서 대표적인 것이 的이고 그 다음으로 化, 性, 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접미사들을 모두 다룰 만한 여유가 없으므로 이 중에서 的의 경우만을 부정 접두어 非와 관련해서 다루기로 한다.

박순함(1981)은 非科學的을 분석하면서 “이 접두 현상은 漢韓 명사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제 2차적 과정임을 시사한다”고 하고 그 일차적인 과정을 科學的이라 하고 이차적 과정을 非科學的이라 하였다. 김규철(1980)에서도 ‘-的’의 특징을 논하면서 그 가운데 ‘非와만 결합된다’고 하고 있다.

이들 양자의 설명은 모두 ‘-的’ 파생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非 파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 보자.

26) A B

현실적—비현실적

합법적—비합법적

합리적—비합리적

다합적—비다합적

문화적—비문화적

위생적—비위생적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 보면 B유형의 존재는 언제나 A유형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A유형이 존재하기만 하면 B유형으로의 파생은 항상 가능하다. 이것은 부정 접두어 非와 접미사 的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비현실, *비합법, *비다합, *비문화, *비위생 등은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의 파생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의 예들의 파생 순서는 먼저 的파생이 선행하고 그 다음 非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的 파생이 이루어져 파생된 어휘는 반드시 부정 접두사로 非를 취한다”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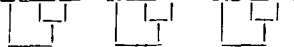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는 접미사 ‘-的’이 부정 접두어로서 非를 취한다는 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27) a. 무의식적, 무조건적, 무계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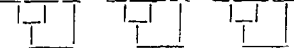
b. 부정기적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방법은 바로 파생 순서를 달리 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28) a. 비합리적, 비위생적, 비합리적



b. 무의식적, 무조건적, 부정기적



과 같이 된다면 앞서 우리가 설정한 “的 파생 어휘는 반드시 부정 접두어로 非를 취한다”라고 하는 규칙에 위반되는 예가 아닌 것이다.²³⁾

위의 3.1, 3.2, 3.3에서 논의했듯이 다소 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23) 김규철(1981)에서는 ‘-的’과 호응하는 ‘非’를 설명하면서 “非計劃的과 無計劃的은 內部 構造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성형태론에서의 Level ordering hypothesis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 접두어 無, 不, 未에는 명사 어기에 부정의 의미를 첨가하는 동시에 명사 어기의 성격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非에는 후자의 기능은 없고 非는 ‘현실적’, ‘논리적’에 부정의 의미만을 첨가하고 있다.²⁴⁾

이러한 非의 특성은 25a) 유형의 예를 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 31) a. 비생산부문, 비정치단체, 비공식회담
비영리법인, 비과세대상, 비공개회의
비동맹국가

우선 이러한 예들의 의미를 따져 보면 두 방향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정치단체를 예로 들어보면 우선 “비정치적인 단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정치단체가 아닌 단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 방법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2) a. (非+A)B
b. (非+(A+B))B

위의 예 32a, b)에서 보면 어느 것이나 어기 부분의 두 요소 중에 뒤의 요소를 한정하면서 부정의 의미만을 첨가하고 있을 뿐, 어기의 형태·통사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없다.

- 33) a. 비합리적 행동, 비직관적 사고, 비상식적 언동
b. 비간섭성 과동

위의 예들 중에서 ‘비합리적 행동’은 두가지 방향으로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합리적이 아닌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 행동이 아닌 행동’이 된다. 이것을 다시 도식화하면 다음의 34)와 같다.

- 34) a. (非+A+a)B
(非+((A+a)+B))B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 접두어와 다음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만을 첨가할 뿐 어기의 형태·통사적인 기능을 바꾸지는 않

24) 野村(1973)에서는 非의 이러한 특성을 지적하면서 ‘不道德’과 ‘非道德의’의 예를 들어서 이들 사이에 문법적 의미적 차이가 없다면, 非는 이미 가진 어휘적 의미를 ‘-的’은 문법적 의미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는다.

5.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소위 성분 부정의 몇 가지 측면을 논의해 왔다. 즉 성분 부정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명사 어기와 부정 접두어의 성격과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소 無, 不, 未, 非는 결합 대상 명사 어기에 그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否定의 의미를 첨가해 줄뿐 아니라, (고유어 접두사뿐만 아니라 동일 위치의 한자어 접두어와는 달리) 결합 대상 명사 어기의 내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부정소 無는 [-상태성] [-동작성]의 어기에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첨가해주고, 동작성의 자질을 가진 명사 어기와 결합하면 그 동작성을 잃어 버리게 한다.

3. 부정소 不은 상태성을 가진 명사 어기에는 부정의 의미만을 첨가해 주고 [-상태성] [-동작성]의 명사 어기에는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더해 준다.

4. 부정소 未는 주로 [+동작성] [+순간성]의 의미 자질을 명사 어기와 결합하는 것이 보통인데 부정소 未와 결합하면 [+피동성]의 자질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5. 부정소 非는 주로 2차적 결합 이상의 명사 어기와 결합하고, 여기에 부정의 의미만을 첨가할 뿐 상적인 성격을 바꾸는 기능은 없다.

본고에서는 부정 접두어와 그것과 결합하는 명사로 그 자료의 범위를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접두어의 결합 대상 명사의 상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들의 체계화를 탐색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부정 접두어와 동일 위치의 다른 한자어 접두어의 목록을 검토하고 이들과 부정 접두어의 용법과 기능을 비교해 봄으로써 부정소의 성격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접미사적인 특성을 가진 한자어의 문제 등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參考文獻〉

- 高永根(1983), 『國語 文法の 研究 : 그 어제와 오늘』, 塔出版社.
- 金圭哲(1980), “漢字語 單語 形成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41.
- (1981), “單語 形成 規則의 精密化—妨害 現象을 中心으로—”, 『언어』 6-2.
- 金錫得(1971), “한국어 否定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3.
- 金倉燮(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震檀學報』 58.
- 朴舜成(1981), “국어의 어두 부정소”, 『현대 국어 문법』(남기심 외, 계명대학교 출판부).
- 李翊燮(1968), “漢字語 造語法の 類型”, 『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 (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 元大誠(1985), “名詞의 相的 特性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65.
- 任洪彬(1979), “用言의 語根 分離 現象에 대하여”, 언어 4-2.
- 崔鉉培(1955), 『우리 말본』, 경음사.
- 野村雄昭(1973), “否定의 接頭語「無·不·未·非」의 用法」『ことばの研究』 4.
- (1974), “三字漢語의 構造”, 『電子計算機による國語研究』(國立國語研究所 報告 51), 秀英出版.
- (1978), “接辭性字音語基의 性格”, 『電子計算機による國語研究』(國立國語 研究所報告 61), 秀英出版.
- 森山卓郎(1986), “接辭と構文”, 『日本語學』, 3月號.
- 相原林司(1986), “不一無一非一未一”, 『日本語學』 3月號.